

# 華嚴寺의 敎理와 내·외부 공간구조에 의한 배치특성 연구

## -十地品을 중심으로-

A Study on Layout character of Hwa-um Temple by Sip-Ji-Pum

조 남 두\* 이 재 국\*\*  
 Cho, Nam-Du Lee, Jae-Kook

### Abstract

The research which it led and it tried to observe the lay out of Hwa-Um buddhist architecture by Avatamska sutra. The avatamska sutra is one of the scriptures which are important from Buddhism and Hwa-Um buddhist architecture is same channel. Sip-ji-pum that it includes the contents of avatamska sutra is most important. Hwa-um buddhist architecture can divide the major space into a three precinct. First, the gate to a Buddhist temple(A step of self interest. Second, Ru and a building for Buddhist priest(A step of Altruistic act). Third, A Buddhist sancturary(A step of Religious ascetic)  
 From the above results, we can know that site layout of Hwa-um buddhist architecture in the Hwa-um sect relations to the dogmatic background, thought.

키워드 : 화엄경, 십지품,

keywords : Avatamska sutra, Sip-Ji-Pum

## 1. 서론

### 1-1. 연구 목적

한국건축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불교건축으로서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는 한국의 전통사상을 이루는 바탕이 되어 왔다. 그 중 화엄사상은 통일을 이루는 밑바탕으로서 또한 민중적 통합을 꾀하는 정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종교세계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화엄사상은 華嚴經을 근본경전으로 삼고 있고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은 十地品<sup>1)</sup>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십지품은 화엄경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사찰배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창건되거나 중창되어진 사찰 중 華嚴系 사찰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화엄십찰<sup>2)</sup>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십지품에 의해 삼국유사에 나오는 화엄십찰

중 화엄사를 중심으로 화엄경의 중심사상과 사찰과의 관계를 시지각적으로 대응시켜 화엄사상과 불교건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 배경

현재 존재하는 사찰들은 위치에 따라 산지형, 구릉형, 평지형으로 분류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탑, 축 등에 의해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구성은 산문, 루, 법당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졌다. 이러한 사찰영역의 구성에는 여러 가지 형성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사찰위치의 결정에 따른 자연·지리적인 환경여건과 信徒數, 寺勢 등의 사회·문화적 여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사상적요소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寺刹創建과 重創時 그 사찰이 어느 종파냐에 따라 배치 및 공간구성, 축 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상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사찰공간이 시지각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바를 밝히고자 한다.

###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화엄경의 내용 중 十地品과 화엄사의 공간적 특징 및 구조를 진입단계별로 시각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진입부인 일주문에서 보여 지는 부문과 각 단계별로 인지되어지는 공간을 사진촬영을 통하여 실제 보여 지는 공간과 십지품이 의미하는 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한 내용에 의하여 화엄경의 중요한 부분인 십지품이

\* 정회원, 동국대 건축과 박사수료, 서일대 건축과강사

\*\*정회원, 공학박사, 서일대학 건축과 부교수

본 논문은 2005년도 서일대학의 교내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1) <화엄경>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십지품은 <십지경>으로 따로 편찬되었다. <화엄경>과 <십지경>은 고려 및 조선시대 佛刹의 敎宗選 시험과목으로 채택된 중요경전이기도 하다.

2) 一然著/崔虎譯, 新譯『三國遺事』, 1995, 홍신문화사, p319.  
 「湘乃令十刹傳敎하니 太白山浮石寺 原州毗摩羅, 伽倻之海印, 毗瑟之玉泉, 金井之梵魚, 南嶽華嚴寺等是也라」

실제 화엄사의 배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다.

2. 華嚴經

「華嚴經」<sup>3)</sup>에는 세 종류의 번역이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이 佛陀跋陀羅(359-429)에 의해 번역된 六十華嚴經이다. 東晉시대에 번역되었다 해서 晉經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혹은 제일 오래된 것이라 하여 舊經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번역은 實叉難陀(652-710)에 의해 이루어진 八十華嚴이다. 당나라 測天武后 때에 성립된 까닭에 唐經이라 한다. 佛陀跋陀羅의 六十華嚴을 舊經이라 일컫는데 대해 이것을 新經이라고도 부른다. 현존하는 「華嚴經」의 완전한 번역은 이 둘뿐이다. 마지막 번역인 四十華嚴은 「華嚴經」 가운데 入法界品을 반야삼장이 번역한 일부 번역이다.

「華嚴經」은 舊經에서는 7處 8會 34品, 新經에서는 7處 9會 39品으로 이루어져 있다. 處는 설법의 장소이고 會는 모인 수요이며 品은 章과 같다.

六十華嚴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를 설법의 자리에 따라 여덟로 나눌 수 있다. 제 1 寂滅道場會 · 제 2 普光法堂會는 지상에서, 제 3 初利天會 · 제 4 夜摩天宮會 · 제 5 兜率天宮會 · 제 6 他化自在天會는 하늘에서 열리는 자리이다. 설법이 진전됨에 따라 자리가 올라가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의 수행이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다가 제 7의 자리는 제 2와 마찬가지로 普光法堂會에서, 제 8은 重閣講堂會에서 마련되는데 모두 지상의 자리이다. 제 8회는 유명한 선재동자의 구도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華嚴經」이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각 品이 독자적으로 행해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하나로 정비되는데, 그 마지막 정리는 서북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4)</sup> 각 品중 가장 일찍 성립한 것이 十地經(品)으로 그 후 몇 개의 品이 때를 지어 내려오다가 지금의 「華嚴經」을 구성하게 되었다. 때문에 「華嚴經」에서 <十地品>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華嚴經」 전체내용<sup>5)</sup>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一法是一切法 一切

法是一法<sup>6)</sup>의 정신과도 통한다.

2-1. 十地品

<十地品>이란 보살이 밟는 十地의 체계를 논한 것이다. 大乘의 보살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열 단계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十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제1歡喜地, 제6現前地 그리고 제10法雲地이다<sup>7)</sup>.

제1은 歡喜地라 하여 보살이 진리를 체득한 즐거움으로 넘쳐있는 경지이다. 부처에게 구원된 기쁨, 혹은 선종에서 말하는 見性의 흥분, 기독교에서의 믿음에 든 환희, 이들 구원의 기쁨은 매우 가라앉은, 그러나 내심에서 우러나는 깊은 희열이고 그곳이 바로 歡喜地이다.

제2지 이하는 誓願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다. 제2는 離垢地라 하여 진리를 체득한 보살이 현실사회에 돌아가 도덕의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리하여 그것에 의해 점차로 인간의 더러움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때 보살은 十善業道를 닦게 된다.

제3은 發光地로 스스로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자 힘쓰는 이타의 두 가지 실천을 거듭하다 보면 자기 속으로부터의 지혜의 광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제4는 焰慧地로 이 경지에 도달하면 자기 안에서 생긴 지혜의 빛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된다. 제5의 難勝地에서는 무엇이나 지는 일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歡喜地에서 진전되어 나가다 제 6 現前地에 이르면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세계의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는다는 自覺 즉, 般若의 지혜가 완성된다. 여기까지는 自利였고 이 넘어서부터 利他로 들어서게 된다. 제7의 遠行地에서는 菩薩行의 완성을 향하는 일에서 잠시라도 떠나는 일이 없다.

제8의 不動地는 보살의 인격형성에 마지막 전환점이 된다. 보살은 이 경지에서 대자연의 운행에 동화하는 것이다. 제9 善慧地와 제10法雲地는 제8의 不動地가 부처의 경지를 향해 나아갈 때 필연적인 도달점으로<sup>8)</sup> 최후의 法雲地에 이르러 利他行도 완성된다. 바로 앞에 부처의 경지가 놓여있다. 수행의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十地經은 일종의 정신현상학이며, 정신의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진전되는 단계를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sup>9)</sup>.(그림1)

3) 「法華經」은 妙法을 說한 經이다. 이에 비해 「華嚴經」은 大方廣佛華嚴經이라 하여 부처에 비중을 더 둔다. 법화경이 법을 말하는 경이라면 「華嚴經」은 부처를 설하는 경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대승경전이 「法華經」이라면 이 「法華經」이 설하는 菩薩道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도정을 말한 것이 「華嚴經」의 <十地品>, <入法界品>이다. 「華嚴經」의 원형인 <十地品>이나 <入法界品>은 초기 대승불교에 나타난 여러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4) 다마키고시로/이원섭 옮김, 「화엄경의 세계」, 현암사, 1993, p212

5) 「華嚴經」은 다른 經典과는 달리 佛說이 아닌 菩薩의 말씀중심으로 菩薩行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는 <十地品>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원효의 華嚴經疏는 六十華嚴인 晉經을 대본으로 했으나 지금은 거의 소실되고 序文과 卷3만 남아있는데, 그 총론적인 序의 내용은 「華嚴經」이해의 큰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由非大故，作極微而無遺。以非小故，爲大虛而有餘。非促之故，能含三世劫波。非奢之故，舉體入一刹。不動不靜故，生死爲涅槃，涅槃爲生死。不一不多故，一法是一切法，一切法是一法。」

7) 카마타 시게오/한형조 옮김, 「화엄의 사상」, 고려원, 1987, p43.

8) 다마키 고시로/이원섭 옮김, 「화엄경의 세계」, 현암사, 1993, p117-118.

경전은 대체로 사상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많지만, 「十地品」의 경우는 보살의 인격형성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

표 1. 十地品

地	名稱	區分
제 1	歡喜地	自利行
제 2	離垢地	
제 3	發光地	
제 4	焰慧地	
제 5	難勝地	
제 6	現前地	利他行
제 7	遠行地	
제 8	不動地	修行
제 9	善慧地	
제 10	法雲地	

2-2. 십지품과 사찰배치

寺刹이란 불교의 종교관과 교리체계를 現成하고 具現하고자 하는 物理的 表現體이다. 따라서 예배와 수도생활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종교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창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교리이다.

교리 및 사상이 배치에 영향을 미친 예로 浮石寺<sup>10)</sup>를 들 수 있는데 經典上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귀보다 그것이 내포하는 세계관, 상징의 실체<sup>11)</sup>를 파악하는 것이 사찰건축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종교건축으로써 지나야 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공간구성의 원리 아래에서 사찰건축은 각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과 불교 내부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3. 화엄사

3-1. 화엄사의 연혁

대한 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는 신라 진흥

9) 앞책 p44.

10) 浮石寺는 淨土三部經을 토대로 우리 중생들이 서방정토인 극락 세계에 이르는 단계를 3으로, 또는 세분화하여 그 3배수인 아홉 단계로 나누고 있다. 중생의 근기를 3종류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삼배왕생이라 하고, 그것을 9종류로 나누어 왕생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9품왕생인 것이다.(김봉렬, 1989, pp76-77. 한국불교연구원, 「부석사」, 일지사, 1993, p64.) 한편 배병선(1997)은 부석사의 전체가람구조를 「華嚴經」과 비교해 34품, 8회, 10지의 각 단계에 따라 전체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11)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1989,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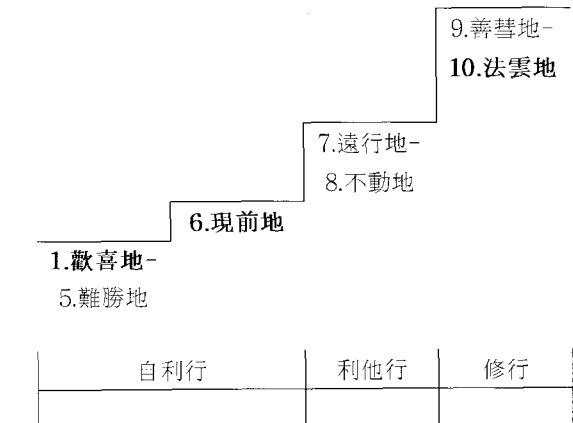


그림 1) 십지품의 전개 과정

왕 5년(544년) 인도승 연기조사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초창과 창건주에 대하여는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없고 연기조사는 수수께끼같은 인물이어서 확실한 기록은 없다.<sup>12)</sup> 창건 당시는 작은 규모였으나 의상대사 시대에 규모가 확장되었다. 아마도 당시의 화엄사상의 유행이 큰 몫을 담당하였으리라 본다. 이렇듯 한때 8원 81암자의 가람이 들어 찬 크나큰 도량으로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해 낸 절이나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숭한 전란의 와중에 휘말려 많은 수난을 겪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인조 8년(1630년)에 벽암선사가 7년 동안 증축을 한끝에 오늘날의 공간구조를 이루게 됐다.

(1) 입지

명산 지리산을 주산으로 하여 서서히 서로 흘러들어 般若峰 노고단을 이루고 구례분지로 내려오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지리산 주변에는 많은 명찰들이 있는데, 남으로는 천은사, 쌍계사, 지리산 최초의 가람 연곡사, 동으로는 법계사, 대원사, 북으로는 선종사람의 대표인 실상사가 있어 화엄사상과 선교양 종파의 대본산으로 장엄한 품격을 갖춘 사찰이다. 초기의 입지는 참선과 수양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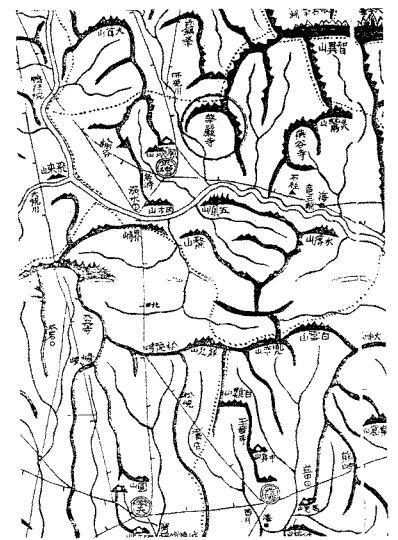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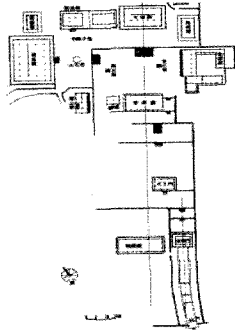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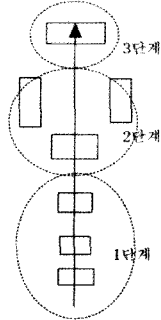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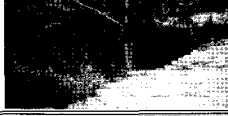




그림 2) 대동여지도

12) 장충식, 한국의 탑, p149 장충식은 연기조사를 진흥왕대 아닌, 화엄사상의 융성기인 8세기의 인물로 보고 있다.

표 2. 十地에 의한 화엄사의 공간구성

華嚴寺			意味分析
			
건축 요소	大雄殿 覺皇殿, 圓通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修行</li> <li>-佛의 단계로 들어섬을 알리는 장식적 요소가미</li> </ul>
공간 구성 요소	높은석축 石階 石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석축으로 인한 불법수행의 어려움 암시</li> </ul>
건축 요소	菩提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利他行</li> <li>-인공적인 석축을 쌓음</li> </ul>
공간 구성 요소	높은석축 石階, 石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전단계보다 높은 수행단계를 암시</li> </ul>
건축 요소	一柱門 天王門 金剛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利行</li> <li>-俗界에서 聖界로의 진입을 위해 자연적 통로형성</li> </ul>
공간 구성 요소	낮은담 좌우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입공간의 효과적 유인으로 진리를 향한 멀고도 험한 길 제시</li> </ul>

(2) 배치

남북국기의 전형적인 배치로 지형에 따라 변화되었다. 천왕문-보제루-대웅전의 축과 각황전-석탑을 이루는 축이 직교하여 백제식 배치의 한 변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sup>13)</sup> 구례는 백제의 5현중 하나였다.<sup>14)</sup> 진입은 계류를 건너 一柱門을 지나 金剛門까지는 낮은 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金剛門을 지나서는 공간이 확장된다. 金剛門을 지나 天王門에 이르는 축은 海印寺와 유사한 구조로 축이 격여져 있다.

天王門을 지나 普濟樓에 이르게 되면 普濟樓와의 軸이 天王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곳에서 普濟樓를 바라보게 되면 좌우수목에 의해 普濟樓의 오른쪽 부분만이 보이게 되고 계단을 오르면 隅角進入을 통해 主공간으로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좌우 동·서탑과 함께 시각적으로 覺皇殿과 大雄殿이 서로 같은 비례로 서있다.

3-2. 화엄사의 공간분석

앞에서 설명한 십지에 의한 공간구성을 화엄사에 적용하면 표4과 같다.

13)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p187

14) 손창수, 화엄사 배치특성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현대석, 1989

표 3 사진촬영시 시점의 변화내용

시점	설명	Focus	시점	설명	Focus
#1	일주문중심에서 5m 후진		#17	천왕문중심과 기와 불사창구의 교점. 우측도로 경계에서 180cm 떨어진 지점	
#2	일주문중심에서 10m 후진		#18	석축상단과 보제루 우측 2번째 기둥과의 교점	
#3	일주문 중심에서 15m 후진		#18'		종각기둥과 보제루 맨 좌측 기둥사이
#4	일주문과 금강문의 중심 일직선		#19	보제루 2번째 기둥에서 250cm 떨어진 지점.	종각
#5	일주문의 중심(기둥중심)	나무3	#19'		등고각 석축
#6	포장돌. 일주문중심의 일직선 상에 위치	금강문중심	#20	보제루 우측 계단 맨 아래 중심. 등고각 석축에서 180cm 떨어진 지점.	
#7	우측수로에서 130, 60떨어진 지점. 일주문에서 두 번째 단	금강문중심	#21	등고각 전면기둥선. 포장면에서 45cm 떨어진 지점	
#8	우측수로에서 140. 일주문에서 3번째 단	금강문중심	#22	보제루 전면 기둥선. 포장면에서 45cm 떨어진 지점	대웅전 활주
#9	계단아래와 금강문중심선. 좌측수로에서 170, 금강문계단에서 150떨어진지점		#22'		명부전
#10	금강문전면중심(기둥중심)		#22''		
#11	금강문후면중심(기둥중심)	표지판	#23	보제루 중심과 대웅전중심선	대웅전 중심
#11'		천왕문중심	#24	각황전 중심과 대웅전중심선	각황전
#12	금강문에서 첫 번째 단중심		#24'		대웅전
#13	천왕문계단아래	보제루석축	#25	서탑중심과 각황전중심선	
#14	천왕문전면중심(기둥중심)		#26	대웅전 석축위 계단참	대웅전중심
#15	천왕문후면중심(기둥중심)		#27	#24, 25의 연장선과 서탑중심의 교차점 각황전 석축기단 위	각황전 전체
#16	합장위치. 우측도로경계에서 180cm 떨어진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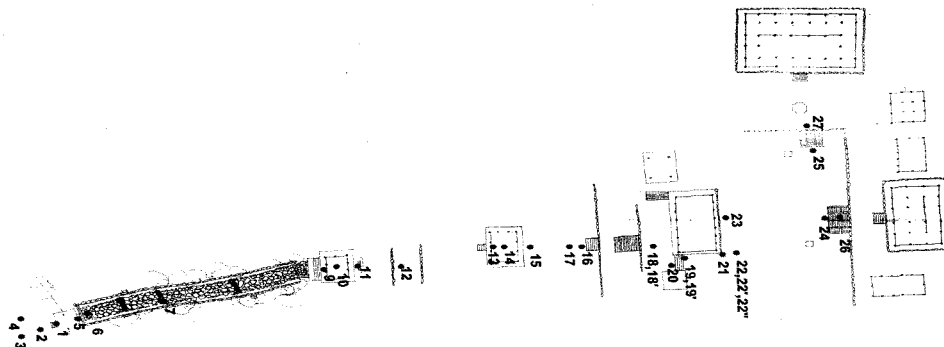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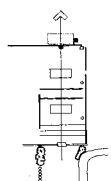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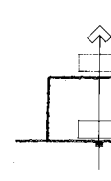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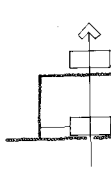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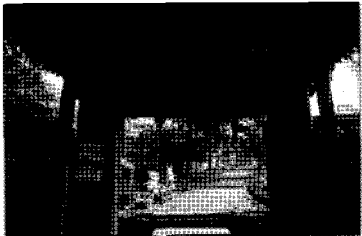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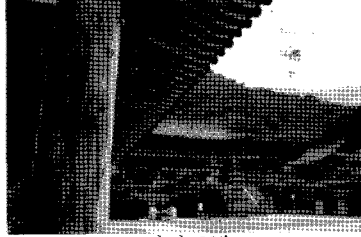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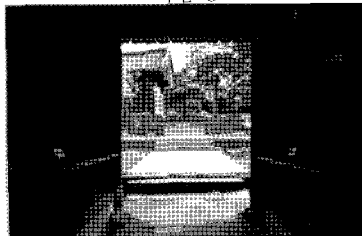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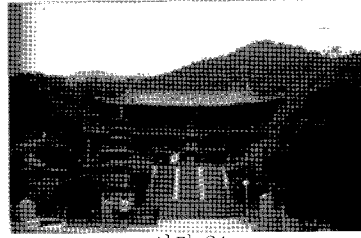


그림 3) 실측·사진 배치도

표 4 십지에 의한 화엄사의 단계별 시점

1歡喜地   6現前地		7遠行地   8不動地		9善慧地   10法雲地	
주전각 건축기법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낮은울담, 좌우수목	주전각 건축기법	보제루, 종루 석축	주전각 건축기법	대웅전, 각황전 원통전, 명부전, 영산전
	시점 1		시점 15		시점 21
	시점 8		시점 17		시점 22'
	시점 10		시점 18'		시점 22''
	시점 11		시점 18		시점 24

### 3-3. 화엄사의 시지각적 고찰

#### (1) 사진촬영

촬영목표는 시지각적 분석을 위한 증빙자료.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찍어도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구는 풀대와, 28mm렌즈, 삼각대를 사용하였으며 측량 도구 풀대로 150cm의 시선으로 수평을 맞추고 총 26개의 시점에서 촬영하였다. 여기서 28mm는 인간의 시선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시야이고 150cm는 일반적인 사람의 눈 높이이다. 단 28mm로는 수평시야는 그대로이나, 수직시

야에 대하여는 렌즈가 부족하므로 상하로 나누어 촬영하였다. 나눈 26개의 시점은 그림3과 같다.

#### 4. 화엄사의 내부공간과 교리와의 대응관계

##### 4.1. 自利行의 단계 : 일주문

사찰의 영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俗世에서 聖界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이 一柱門이다. 일반적으로 일주문은 한줄로 연결된 기둥에 지붕이 있는 출입과 관련된 문이다. 기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

실상 문짝을 달지 않고 규모도 중규모 이상으로 건립되는 것이 보통인데 화엄사의 일주문은 규모도 작지만 문짝이 달려 있고 담장이 연결되어 있어 속세와의 강한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경전에서는,

“凡夫地 를 넘어서 보살의 必定位문에 들어가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다.”

고도 하고,

“일체의 世間길에서 나와 出世間의 길로 들어감으로써 보살의 法性에 거처한다.”

고도 한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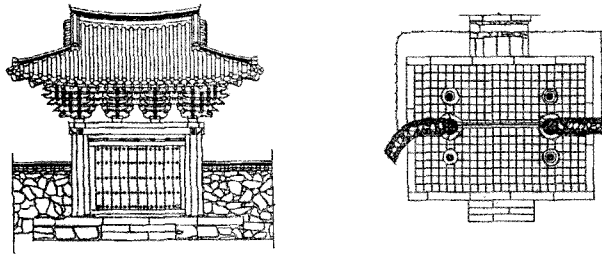


그림 4) 화엄사 일주문의 평면과 입면

이를 거쳐 올라가는 길은 금강문과 천왕문에 이르러 완성된다. 천왕문은 정면3칸 측면3칸의 규모로 자기수행을 하는 도중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더욱더 정진하라는 사천왕들의 격려 속에 내부의 분위기는 엄숙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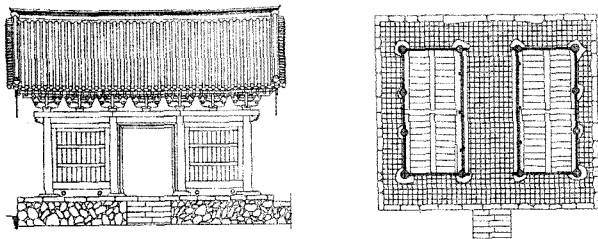


그림 5) 화엄사 천왕문의 평면과 입면

#### 4.2. 利他行의 단계 : 보제루

천왕문까지의 단계는 자기몰입에 의한 自利行의 과정이다. 때문에 외부공간요소도 자기수행의 과정에 맞게 시선을 차단하였으며 내부공간에서도 일주문의 경우 문짝과 천왕문에서는 깊이있는 공간감을 주어 엄숙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자기수행의 과정이 끝나고 높고 가파른 석축을 올라 利他行의 단계에서 보여 지는 건물인 普濟樓를 만나게 된다. 가파른 석축은 제5난승지를 의미하며 이루기 힘든 경지에 대한 염원이기도 하다. 보제루는 법회와 법요식을 거행할 때 쓰이는 곳으로 中門에 해당

되는 곳이다. 법계에 投網을 하여 모든 중생을 건진다는 의미의 건물이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 형식이며, 대웅전 다음으로 큰 건물이다.

수행단계의 어려움을 암시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우각진입이라는 방법을 써서 주공간으로의 진입을 시도한 건물이다.

이제부터 타인을 위해 보살의 수행단계인 제6현전지를 거쳐 제7원행지와 제8부동지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화북지방에 건국한 北齊의 문선제(文宣帝, 재위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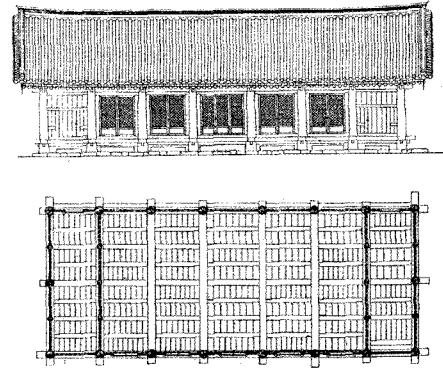


그림 6) 화엄사 보제루의 평면과 입면

559) 때 수도 업에 현의사(顯義寺)라는 사찰에서 당시 화엄경 연구의 제일인자인 승범이라는 승려가 『화엄경』 「십지품」의 제6지까지 강의를 진행했을 때, 기러기 한 마리가 탑 주위를 돌아 강경당으로 들어와 승범 앞에 날개를 접고 앉아 강의를 들었다<sup>16)</sup>고 한다. 이는 제6현전지가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6현전지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타나고, 제7지에서는 넓고 큰 마음이, 제8지에서는 신통력이 실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제루는 강의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7×4칸은 1:2.11의 비율로 대웅전 1:1.67, 각황전 1:1.47에 비해 세로의 비율이 강조된 건물이다. 즉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크다는 것은 대웅전이나 각황전의 예배형식이 아닌 강의를 위한 공간 구성임을 평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4.3. 修行의 단계 : 대웅전과 각황전

利他行의 단계를 지나 석계를 올라가면 화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전각 즉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부처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제9선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빛이 널리 비치는 것을, 제10법운지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법의 비를 맞는 것으로 심지는 마무리를 하고 있다.

모든 보살행을 마치고 부처의 세계로 입문하는 의미로서 제10지에 이르러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나 또한 부처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16) 다마키 고시로/이원섭역, 화엄경의 세계, 현암사, 1993,119p.

17) 앞책, 223p.

각황전과 대웅전의 성격상 화엄사내에서 모두 중요한 건물이지만 각황전의 경우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빛의 유입과 불단의 위치가 잘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웅전의 경우 빛의 들어오는 각도와 부처님이 계시는 곳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평면상의 비율은 각황전 1:1.47, 대웅전 1:1.67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규모와 장식 내부 빛의 유입경로 등을 보았을 때 각황전의 중요도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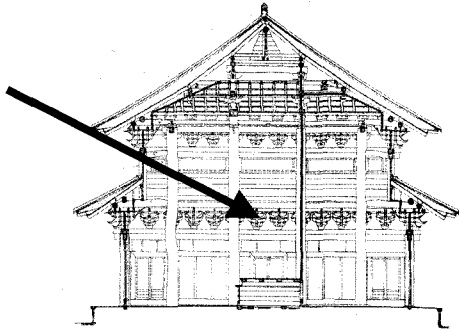


그림 7) 각황전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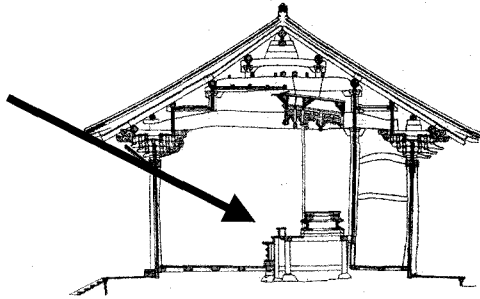


그림 8) 대웅전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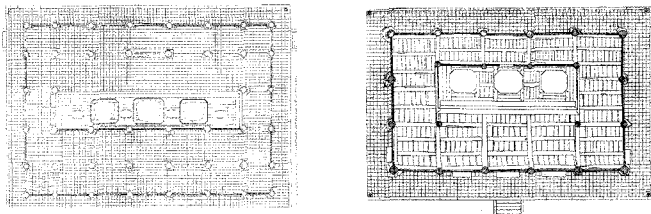


그림 9) 각황전의 평면과 대웅전의 평면

## 5.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일주문을 통하여 천왕문 금강문을 지나 보제루 앞 계단까지는 自利行으로 볼 수 있다.

건축요소는 낮은 담과 가공되지 않은 석축과, 길, 동선의 꺾임으로 나타나며, 십지의 제1환회지에서 제5난승지에

해당한다. 佛의 단계로 들어섬을 알리는 장식적 요소와 높은 석축으로 인한 불법수행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보제루 앞의 계단을 지나 중정부분까지는 제7지에서 제8지인 利他行으로 볼 수 있다. 자리행에서 보여지는 석축보다 높이는 더 높아지고, 간격도 더 좁아진다.

셋째, 마지막 법당으로 향하는 계단과 불전은 불법의 완성을 뜻하는 修行으로 볼 수 있다. 자연스런 구조물에서 손이 닿은 인공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만든 석교가 놓여 있으며 그 석교 너머로 부처의 세계에 도달한다.

넷째, 화엄사는 화엄사상을 기본으로 창건되었으며, 의상대사가 설정한 화엄십찰 속에서 南岳의 중심지로서의 화엄사찰임을 알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화엄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십지품과 대응됨을 알 수 있다.

화엄계 모든 사찰이 화엄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인사, 범어사, 부석사의 예처럼 의상이나 그의 제자와 관련 있는 초기사찰의 경우 축과 공간배치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의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교리와 의 관계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삼국유사』,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1973.
- 『한국사찰전서』, 권상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 의상, 『일승법계도』 (『한국불교전서』 2)
- 가마타 시게오, 한형조 역, 1987, 「화엄의 사상」, 고려원.
- 가마타 시게오, 장휘옥 역, 1993, 「화엄경이야기」, 장승.
- 다마키 고시로, 이원섭 역, 1993, 「화엄경의 세계」, 현암사.
- 김현준, 1991,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 최완수, 1994, 「명,찰순례①」, 대원사.
- 전해주, 1993, 「의상화엄 사상사 연구」, 민족사.
- 안영배, 1980,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제출판사.
- 한국불교연구원, 1976, 「화엄사」, 한국의 사찰8, 일지사.
- 김봉렬, 1989,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서울대박사학위 논문
- 화엄사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송기선, 1982, 홍익대학교 석사논문